

No.4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0. 15 ~ 10. 21



사단법인 **한일경제협회**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Japan Weekly Digest (No.4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- 도요타 캠리 등 4종 한국 판매
- 도요타, 신흥국시장 타깃 저가자동차 개발
- 일 통화스왑계약 2010년까지 연장
- 2009 한일경제심포지움 개최, 일본 경단련회관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하토야마 정권 출범 1개월, 높은 지지
- 일본 교세라 한국법인 '한국교세라미타' 출범
- 한스킨 'B.B크림' 1년만에 매출 1000억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나오시마(直嶋) 경산성 장관 1개월 평
- COP합의를 위한 협력 - IEA각료이사회
- UAE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원전도입지원 표명
- 8월 3차 산업 활동지수, 3개월 연속 상승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기업은 어떻게 엔고에 대응하였는가?,
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□ 금주의 이슈

○ 도요타 캠리 등 4종류의 차량 한국 판매 (10/20)

- 프리우스, 중형세단 캠리·캠리하이브리드, SUV RAV4 등 4종류 발표.
도요타 대중 브랜드로서는 첫 시장진출로 연내 월 500대 판매 목표
- 캠리3490만원 등 예상을 뛰어넘는 저가책정으로 한국 승용차업계 긴장

○ 도요타, 신흥국시장을 타깃으로 저가격자동차 개발 (10/16)

- 자회사인 다이하츠공업과 공동 개발하여 2010년대 전반에 신흥국 판매용 저가격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16일자 일본경제지에 보도
- 가격대는 100만 엔 이하이며 인도, 브라질, 중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, 신흥국 진출 전략을 본격화할 전망
- 반면, 도요타는‘그러한 사실이 없다’며 저가차량 개발 계획 부인

○ 한국은행, 일 통화스왑계약 2010년까지 연장 (10/16)

-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의 200억 달러 상당액의 통화스왑계약 유효기간을 2010년 2월 1일까지로 재연장
-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

○ 세계 주식시가총액 2월말에 비해 50% 이상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. 반면 일본은 30% 증가에 그쳐 (10/19)

- 주요52시장의 주식시가총액의 합이 약45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2월말로부터 50%이상 증가하여 작년 9월 리먼쇼크 이전 수준에 근접했으나 일본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30% 증가에 머물

○ 2009 한일경제심포지움 개최, 일한경제협회/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(10/19)

- 對日 무역 개선책과 對韓 투자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한일간 협력제휴의 가능성과 과제 등을 모색. 10월 19일(월), 일본 경단련회관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하토야마 정권 출범 1개월, ‘높은 지지율과 기대’. 공약이행을 위한 막대한 자원과 불황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 해결 등이 향후 과제
 - 정권 출범 1개월 지지율이 조사기관별로 65%~72%로 높은 평가
 - 지지 이유로 △행정 비효율 삭감 56% △탈 관료·정치주도 체제 만들기 17% △연금·의료, 정치자금 문제 7% 등(일본경제신문)
 - 공약의 절반 실행에 착수,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자세 평가
 - 178항목의 정책 중에 이미 착수·실행된 공약은 87항목(49%)
 - 반면, 공약을 위한 사상최대규모 예산편성. 국채 추가발행 불가결
 - ‘아동수당, 고속도로 무료화’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자금이 총액을 압박, 예산요구액이 사상최대규모인 95조원으로 증가
 - 한편으로 2009년 세수가 40조엔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채의 추가발행이 불가피할 전망. 세수가 40조엔을 하회한 것은 1985년도 38조 이후 24년만에 처음
 - 또한, 민주·사민·국민신당 등 연립여당의 일체감과 정치적 융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층이 53%로 문제없다는 33%를 상회
 - 안전보장, 일·미 관계, 우정민영화 재검토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음
 - 하토야마 총리의 야스쿠니 대체 공약 지체
 - 외교 문제를 야기해온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에 인접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고 누구나 전몰자 추도가 가능한 국립추도시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건설 비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최소한 2011년 이후로 연기
- 일본 교세라 한국법인 ‘한국교세라미타’ 출범 (10/15)
 - 프린터·복합기 시장 진출. 2년 안에 점유율 10%·빅5 진입 목표
- 한스킨 ‘B.B크림’ 일본 시장 진출 1년만에 매출 1000억 (10/15)
 - 닛케이트렌드가 선정한 30대 히트상품 가운데 7위, 지난해 4월 일본 홈쇼핑 QVC에서 30분 동안 1300만엔 가량 판매 등 인기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나오시마(直嶋) 경산성 장관 1개월 평 (아사히 신문, 10/17)

-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여 정책에 밝은 전형적인 조정형으로 안정감은 있으나 너무나 상식적이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안팎의 평
- 존재감, 정보발신력, 탈관료도, 정책 추진력, 성장력 평가는 낮으나 안정감이 돋보이는 인물로 평가
- △온실가스 25% 삭감 관련,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대해 ‘대화중시’강조 △예산편성 관련, ‘전혀 필요 없는 사업은 없다’며 소폭 삭감에 그침

○ COP (Conference of the Parties)합의를 위한 협력 강화 - IEA(국제에너지기구) 각료이사회 15일 폐막

- 28개 가맹국과 중국·인도·러시아는 에너지절약기술의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는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에 합의
- 나오시마 장관은 COP합의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표명

○ 경산성,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발자국 상품 유통개시

- 탄소발자국 제도에 따른 ‘이온’사 새해용품 3가지를 17일부터 유통개시
- 탄소발자국(Carbon Footprint)은 상품의 원재료조달부터 폐기·리사이클까지 상품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

○ 나오시마 장관 UAE에너지장관과 회담, 원전도입지원 등 표명 (10/18)

- UAE(아랍 에미리트연방)가 계획하고 있는 원전도입에 대한 협력과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권리갱신 등을 논의

○ 8월 3차 산업활동 지수, 3개월 연속 상승 (10/19)

- 경산성이 19일 발표한 8월 3차 산업활동 지수에 따르면 97.1로 전월비 0.3%, 3개월 연속 상승
- 토목·건설 부문이 민간·공공 모두 큰 폭 상승한 반면 도소매업 부문 부진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일본기업은 어떻게 엔고에 대응하였는가? -원고 극복을 위한 사례 연구’

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09. 10.

-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회복 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‘**원고 (원화가치 상승)**’에 대한 ‘**전망과 대책**’을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하면 서도 급격한 통화가치 상승을 수차례 겪은 **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해 모색**
 - 원화절상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가격경쟁력 훼손과 같은 거시·미시적 부작용을 1973년 변동환율제도 도입 이후의 엔화와 일본산업의 경쟁력 변동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분석
 -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한국기업의 수출 증가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, 실효환율면에서도 낮게 평가되어 있어 원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
- **일본의 엔은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△경상수지흑자 △외교정치적 요인 △국제금융시장의 역학 등으로 4배의 통화가치 절상을 겪음**
 - 가장 큰 요인은 경상수지흑자의 지속에 내수시장 확대가 따르지 못한 것
 -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격한 원화절상이 국내 제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음. 원고의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국내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급격한 원고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일본의 경험에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
 - 또한, 실리를 동반하지 못하는 불채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화절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당국의 신중한 지원 주문
- 일본은 무리한 환율통제 시도 등 **거시적 관점에서 반면교사**라고 할 수 있지만, 개별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환리스크 경감을 위한 분산투자 등 **미시적 관점에서 본받아야할 점이 많은 선구자**로 평가
 - 일본의 기업들이 통화절상을 겪을 때마다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여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듯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‘원화절상=기회’라는 발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
 - 일본 기업은 엔고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대응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